

# ChungNam Report+



## 사각지대 없는 충청남도 농업인의 건강권 보장 정책 방안

명 형 남 · 강 마 아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연구위원, 산업·경제연구실 연구위원  
myunghn@cni.re.kr, kmayat@cni.re.kr

### 주요내용

#### 농업인 건강권 보장 필요성

- 농업인은 생물화학적·사회경제적·물리적 환경에 있어 일반 직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 농업은 대부분 소규모 자영농 형태로 추진되면서 작업노동과 관련된 직업성질환 검진과 작업환경 개선관리 등 산업보건 관리에서도 배제되어 사각지대가 발생

#### 농업인 보건·안전 주요 현행제도와 한계

- 농업인의 보건·안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제도와 사업이 지자체에서 작동하기에 한계가 존재

#### 충남 농업인의 보건·안전 실태진단

- 충남 농업인의 누적 질병 유병률은 25.3%로 8개 광역도 중 네 번째로 높음. 누적 손상 발생률은 2번째로 높아 손상에 대한 관리가 필요
- 급성 농약중독 증상 경험률은 작목별로 볼 때 하우스, 과수, 노지(밭)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벼의 경우에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음
-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온열질환자는 2020년까지 감소하였다가 2023년 190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사망 장소는 논·밭·산, 비닐하우스 등으로 대부분 농작업과 관련된 장소였음

####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 농업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6대 추진전략과 19개 정책과제를 도출
- [추진전략1] 충남 농업인 보건·안전에 위한 정책(사업) 추진 기반 마련
- [추진전략2] 충남 농업인 보건·안전에 위한 유해환경요인 평가 및 개선.
- [추진전략3] 충남 농업인 밀착형 보건복지 통합관리서비스 구축. [추진전략4] 충남 농업인 인식개선 강화. [추진전략5] 충남 농업인 보건·안전피해 사후관리.
- [추진전략6] 우선관리지역(청양, 태안, 논산, 부여) 시범사업 실시

## 01

## 농업인 건강권 보장 필요성

- 농업인은 생물화학적·사회경제적·물리적 환경에 있어 일반 직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
  - 생물화학적 관점에서 농업인은 분진·유기용제·화학물질·간접흡연·감염물질 등 생물화학적 위험의 노출 빈도가 높고, 농작업 과정에서 다양한 병원체에 노출되어 감염성 질환(예: 쯤쯤가무시 등)에 취약
  -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농업인은 도로, 상수도, 교통서비스 등 생활여건, 주거환경, 의료서비스 등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
  - 물리적 관점에서 농업인은 환경위험(진동·소음·고온·저온)과 인간공학적 위험(통증자세·사람이동·중량물취급·반복동작)에서 타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노출 비율
- 농업은 대부분 소규모 자영농 형태로 추진되면서 작업노동과 관련된 직업성질환 검진과 작업환경 개선관리 등 산업보건 관리에서도 배제되어 사각지대가 발생
  - 우리나라 농업은 약 220만 명의 인구구조를 가지는 여전히 주요한 산업 중 하나이며, 충남도민 중 농업인의 비율은 약 12.2%를 차지
- 충남은 석탄화력발전, 석유화학단지, 철강단지 등 대형 환경유해시설 분포와 주거-공장 혼재 지역의 문제가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여 주민들의 건강 피해 우려
  - 현재 충남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오염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환경오염 노출과 건강 영향과의 인과관계 규명이 쉽지 않음. 또한 인과성을 규명하더라도 사전예방 관리가 아니라 사후관리 차원으로써 한계
- 따라서 공적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인 농촌지역 농업인의 보건·안전 관리 실태진단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 방안이 필요



[농업인 건강권 보장의 필요성]

02

## 농업인 보건·안전 주요 현행제도와 한계

- 농업인의 보건·안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제도 및 한계는 아래 표와 같음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해당 하면서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대상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 및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일부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51~70세 여성농민 대상으로 20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을 검진. 문화차원의 활동비를 자부담 포함하여 15만 원 지원
  - (농업안전보건센터) 전국 권역별로 농업인의 하리질환, 무릎관절염, 상지근골격계 질환, 농약중독, 손상 질환 관리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보험지원
  - (환경부 역학조사, 주민건강영향조사, 피해구제)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관리의 한계

〈농업인 보건·안전 관련 주요 현행제도와 한계〉

구분	제도	한 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는 한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부합하기 힘든 조건(임차농지 등)에 놓여있는 농업인은 제외</li> <li>• 사각지대 발생</li> </ul>
농림축산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재보험처럼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서 보상수준과 범위가 낮아 가입율이 낮음</li> <li>• 기후위기, 정신건강 등 새롭게 대두되는 보건 문제에 대한 시기적절한 보상 대응에 한계</li> </ul>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사업으로 전체 약 100만 여성농업인에게 적용하기에 한계</li> </ul>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 관리 차원에서의 지원보다는 문화 차원에서의 활동비 개념으로 지급</li> </ul>
	농업안전보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 중심으로 권역별 센터가 존재하므로 농업인이 상시 접근하기에 취약한 구조였으나, 이조차 2024년부터 사업이 일몰되어 센터 업무 정지</li> </ul>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약 5%의 농림어업인만 산재보험 혜택</li> </ul>
환경부	역학조사, 건강영향조사, 피해구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과관계 규명 어렵고, 인과관계가 규명되더라도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관리 대책의 한계</li> </ul>

## 충남 농업인의 보건·안전 실태진단

### ■ 실태진단을 위해 활용한 자료(조사 기간)

- 농촌진흥청 농업인 안전 중앙 DB센터 자료(2012~2021/작수해는 업무상 질병, 흡수해는 업무상 손상)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제6차 경제활동 인구기반 근로환경조사)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자료(2007~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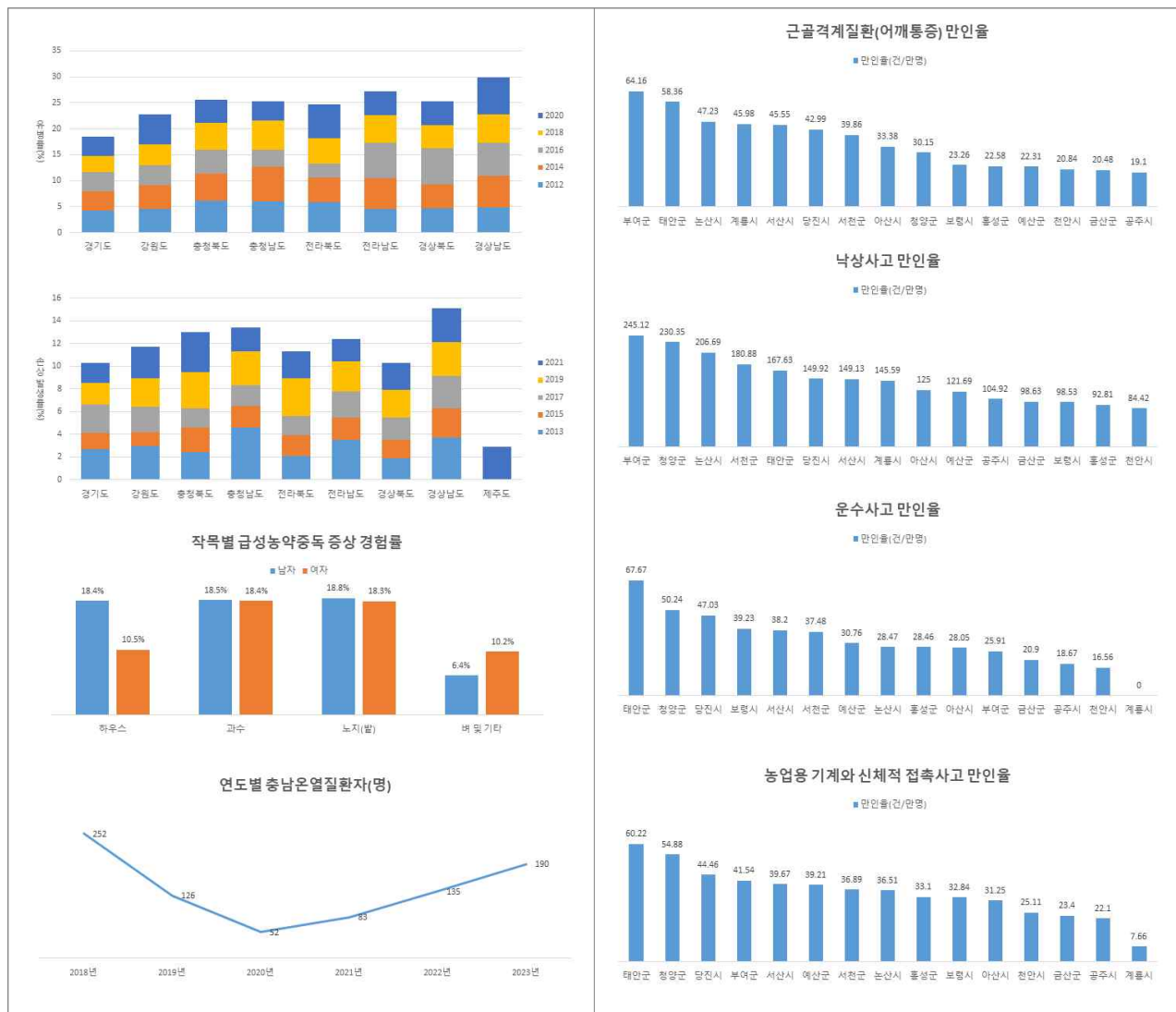
### 1. 농업인과 일반직업인 비교

- (농업인과 일반 직업인의 환경노출·생물화학적·인간공학적 위험 비교) 농업인은 '실내·실외 관계없이 낮은 온도'와 '일하지 않을 때조차 땀을 흘릴 정도로 높은 온도'의 노출 비율이 일반 직업인에 비해 각각 약 2.4배, 약 3배 높음. '연기·흙·가루·먼지 등 흡입'의 노출 비율은 일반 직업인에 비해 약간 높았고, '화학제품/물질을 취급하거나 피부와 접촉'에 대한 위험 비율은 약 2배 높음.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동작'과 '계속 서 있는 자세'의 비율은 일반 직업인에 비해 약 1.3~1.4배 높았고,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밀거나 옮김'과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의 비율은 일반 직업인에 비해 약 2배 높음
- (농업인과 일반 직업인의 산업재해 비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농업인의 산업재해율은 전체산업의 약 2배를 자치하다가 2014년부터 점차 그 간격이 좁혀지고 있음.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재해율이 높았고, 특히 농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규모에서 재해율이 가장 높았음. 재해 유형별로는 농업의 '떨어짐'의 재해율이 전체산업에 비해 약 2배 높음



## 2. 전국 대비 충남(15개 시군) 농업인 비교

- (전국과 충남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 비교) 충남 농업인의 누적 질병 유병률은 25.3%로 8개 광역시 중, 4번째로 높음. 누적 손상 발생률은 2번째로 높아 손상에 대한 관리가 필요
- (충남 15개 시군 농업인의 질병 및 사고 비교) 농업인 업무상 질병 중에서 농업인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근골격계 질환(어깨통증)의 만인율은 부여군이 64.16으로 가장 높음. 농업인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도 부여군이 245.12로 가장 높음. '운수사고'와 '농업용 기계와 신체적 접촉사고'는 태안군이 각각 67.67, 60.22로 가장 높음. 충남도 내 15개 시군의 업무상 질병과 사고를 비교·분석한 결과, 상위 순서 3위 이상에 다수 분포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군은 청양군, 태안군, 논산시, 부여군으로 집중관리가 필요
- (농약 중독) 급성 농약 중독 증상 경험률은 작목별로는 볼 때 하우스, 과수, 노지(밭)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으며, 벼의 경우에만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높음
- (기후변화 관련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기반으로 운영되는 온열질환자 발생 특성을 보면, 2018년 252명에서 2020년 52명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임





##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농업인의 보건안전실태 진단 및 국내외 정책동향조사, 농업인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농업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6대 추진전략과 19개의 정책과제를 도출



### 참고문헌

※ 본 원고는 충남연구원 전략과제(명형남·강마야, 2023, 충남 농업인의 보건·안전 실태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발췌하여 정리함.